

#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對日談論으로서 울릉도·독도\*

장 순 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선행 연구 성과를 토대로 17세기 후반 ‘울릉도 쟁계(일명 안용복 사건)’ 이후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담론과 그 인식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693년~1696년에 걸쳐 있었던 안용복의 도일과 조일간의 울릉도를 둘러싼 영유권 논쟁인 ‘울릉도 쟁계’는 조선 지식인들에게 울릉도와 부속도서인 독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독도의 존재를 재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편찬된 관찬사서나 개인문집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별도의 섬으로 우리의 땅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17~8세기가 되면 일본을 직접 견문한 통신사행원들이 남긴 사행록을 통하여 일본의 사회상과 문물이 점차 조선사회에 소개되고, 임진왜란 후 1세기가 지남에 따라 임진왜란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객관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서, 실학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일본관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들의 일본관은 관료층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식인들보다 참신하고 개방적이었다. 이러한 대일인식은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에 대해서도 투영되어 주요 대일담론으로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술을 다수 남기게 된다.

18세기 조선지식인의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담론은 당시 지식인들의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 2014S1A5A2A01013985).

\*\*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현실인식과 조일관계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내용에 가감이 이루어져 전승되었는데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일본에서 말하는 竹島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松島는 우산도(독도)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성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두 섬이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둘째, 조일간의 울릉도 분쟁이었던 ‘울릉도 쟁계’와 울릉도를 지킨 인물로서 ‘안용복’을 주목하여 별도의 항목을 두면서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안용복을 영토문제 뿐 아니라 조일관계에서도 대마도의 음흉한 계략과 이중성을 폭로하여 대마도에 대한 재인식을 촉발시킨 인물로 그리면서 ‘영웅호걸’로 평가하였다.

셋째, ‘울릉도 쟁계’의 전개와 종결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안용복의 도일 행위를 울릉도 영토문제에 국한한 것 아니라 조일관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정치행위로 이해하였다.

넷째, ‘울릉도 쟁계’라는 울릉도 영유권 논쟁이 막부의 뜻이 아니라 대마도의 ‘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함으로써 막부에게는 우호적이고, 대마도에게는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대일인식에 있어서 이러한 이분법적인 경향성은 조선후기 일본에 관심을 가졌던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인식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당대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대일인식의 한계이기도 하다.

#### 【주제어】

울릉도 쟁계, 대일담론, 울릉도, 우산도(독도), 안용복, 실학자

#### ◆ 차례

1. 머리말
2. ‘울릉도 쟁계’와 울릉도·독도 영유권의 재확인
3. 18세기 지식인들의 울릉도·독도 기술
4. 對日談論으로서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
5. 맺음말

## 1. 머리말

본 연구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선행 연구 성과를 토대로 17세기 후반 ‘울릉도 쟁계(일명 안용복 사건)’ 이후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담론과 인식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7세기 후반에 있었던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간의 영토분쟁인 ‘울릉도 쟁계’는 조선정부의 영토인식을 크게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1693년 일본에 피랍된 안용복이 송환되는 과정에서 울릉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조정에서는 이듬해인 1694년 9월 張漢相을 삼척첨사에 임명하여 울릉도 조사, 즉 搜討를 명하였다. 조정에서는 울릉도의 상황을 살핀 후에 백성들을 모집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鎭을 설치하여 일본의 울릉도 침탈을 막을 의도를 갖고 있었다.<sup>1)</sup> 장한상의 울릉도 수도로 조선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지만, 울릉도에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2년 간격으로 울릉도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는 수도제를 제도화하여<sup>2)</sup>, 1699년부터<sup>3)</sup> 19세기 후반까지 200여 년 동안 울릉도 일대의 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울릉도 쟁계’<sup>4)</sup>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성과 또한 크다. 최근에는 한일관계사 속에서 울릉도와 독도 문제를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

1) 『숙종실록』 숙종 20년 8월 14일(기유)

2) 『숙종실록』 숙종 23년 4월 13일(임술)

3) 유미림은 숙종이 울릉도 수도명령을 내린 사실이 곧바로 수도제가 정식화된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수도가 실시된 것은 1699년이라고 보았다.(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4, 77~78쪽)

4) 조선후기 조일 간에 전개된 울릉도 영유권에 관한 논쟁을 조선에서는 ‘鬱陵島 爭界’라고 부르고, 전근대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잇켄(竹島一件)’ 또는 ‘겐로쿠다케시마잇켄(元祿竹島一件)’이라고 부른다.

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경향은 독도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접근에 보다 다양하고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5)</sup> 그럼에도 조선후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울릉도 쟁계’ 이후 조선 정부의 울릉도·독도 관리, 동해(울릉도·독도 해역)에서의 조선인들의 어로 활동의 전개 양상, 울릉도와 독도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와 달리 18세기를 살았던 지식인들은 ‘울릉도 쟁계’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것의 단초를 제공한 안용복의 활약과 ‘영웅적’ 행동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들은 성호 이익의 학풍을 계승한 성호학파와 북학파인 연암학과, 그리고 이들 실학자들과 일정한 교유 관계를 가지면서 직접 통신사행에 참여하여 일본을 견문했던 인물들의 문집에서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당대의 다른 지식인 내지 관료 집단과 달리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에 대하여 자신들의 문집에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록들이 조선후기 지식인의 담론 속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공유되었는지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6)</sup>

5) 이훈, 『조선후기 獨島 영속 시비』,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池內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 2006; 홍성덕, 「17세기 후반 한일 외교교섭과 울릉도-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을 중심으로」, 『독도·울릉도 연구-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2010; 윤유숙, 「18세기~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 『東洋史學研究』 118, 2012; 1693년 조선인의 돛토리번(鳥取藩) 연행 사건과 쓰시마번(對馬藩)』, 『동양사학연구』 123, 2013; 1696년 오키(隱岐)에 도향한 조선인들의 송환과정 검토』, 『日本歷史研究』 38, 2013; 줄고, 「조선후기 對馬藩의 조선 교섭과 1693년 울릉도 영속시비」, 『동북아역사논총』 37, 동북아역사재단, 2012; 「17세기 조일관계와 ‘鬱陵島 爭界」, 『역사와 경계』 84, 부산경남사학회, 2012; 「17세기 후반 ‘鬱陵島 爭界’의 종결과 對馬島(1696~1699년)」, 『한일관계사연구』 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6) 조선후기 문집에 기록된 안용복을 추적한 진재교의 연구(「元重擧의 『安龍福傳』 연구-‘안용복’을 기억하는 방식-」, 『진단학보』 108, 2009)가 있지만,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조선 지식인들 간에 울릉도·독도 및 ‘울릉도 쟁계’, 그리고 안용복이 사회적 담론으로서 어떻게 기록되고, 상호 공유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역사성의 재확인뿐 아니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대일인식, 나아가 조선후기 한일관계 및 조선후기 사회사적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울릉도 쟁계’와 울릉도·독도 영유권의 재확인

『삼국사기(三國史記)』의 512년(지증왕 13) 신라장군 異斯夫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로 이뤄진 우산국을 항복시켰다는 기록은 우리 역사 속에 울릉도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사료이다.<sup>7)</sup> 그러나 독도의 존재가 사료 상으로 명시된 것은 조선 초기의 일이다. 1416년(태종 16)에 조정에서는 동해상에는 武陵島가 있고 그 옆에 小島가 있는데, 무릉도에 軍役을 피하여 살고 있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인우를 ‘武陵等處按撫使’로 파견하여 두 섬의 주민들을 육지로 쇠환해 오도록 하였다.<sup>8)</sup> 여기에서 무릉도는 지금의 울릉도이고, 그 옆에 있는 小島는 독도를 말한다. 그 후 1425년(세종 7)에도 ‘武陵等處按撫使’ 김인우는 무릉도에 도망가 거주하고 있던 강원도 평해 사람 金乙之 등을 쇠환해 왔다.<sup>9)</sup>

울릉도와 그 옆에 위치한 작은 섬(小島)의 존재는 『세종실록』 「지리

---

원증거에 한정하여 『和國志』 가운데 「안용복전」의 문학적인 작품성에 초점을 두었다.

7) 『삼국사기』 권4, 「지증왕조」 지증왕 13년 6월

8) 『태종실록』 태종 16년 9월 2일(경인), 태종 17년 2월 8일(을축)

9) 『세종실록』 세종 7년 8월 8일(갑술), 10월 20일(을유), 10월 26일(신묘)

지』와 1451년(문종1)에 간행된 『고려사』 『지리지』에도 나온다. “우산·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에 있고,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다.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고 불렀고, 울릉도라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0)</sup>

그러나 중종대에 오면 별개의 섬(2도설)인 울릉도와 우산도를 ‘우산과 울릉이 한 섬(1도설)’이라고 후퇴한 모습이 보인다.<sup>11)</sup> 중종의 명을 받아 李荇이 주관하여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우산도·울릉도’라고 두 개의 도서명을 적고, 내용에서는 ‘두 섬’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날씨가 맑으면 봉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고, 순풍이면 이틀 만에 갈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울릉도’만을 언급하고 있다. 더구나 주석 부분에 ‘一說’이긴 하지만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본래 한 섬이었다는 설까지 언급함으로써 기존의 2도설에서 1도설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한 섬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견해는 1693년 일본에 피랍된 안용복의 귀국 후 이루어진 1694년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 이후에야 바뀌게 된다.<sup>12)</sup>

10) 『고려사』 권58, 『지리지』 12, 地理 東界 蔚珍縣

11) 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峯岌業地撐空 南峯稍卑 風日清明 卽峰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說于山鬱陵本一島 地方百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5, 江原道 蔚珍縣)

유미립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 가운데 ‘역력히 볼 수 있다(歷歷可見)’고 할 때의 보인다(可見)’의 의미는 육지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목에 두 개의 도서명을 적고 내용에서도 ‘두 섬’이라고 표현했지만, 우산도까지 포괄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유미립, 위의 책 38~39쪽)

12) ‘울릉도 쟁계’ 이전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록은 이외에도 이수광의 『지봉유설』(1614년, 광해군6), 韓百謙의 『東國地理志』(1615년, 광해군7), 磻溪 柳馨遠의 『東國輿地志』(1656년, 효종7), 李山海의 『鵝溪遺稿』(1659년, 효종10) 등이 있는데 이들 문헌들은 모두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저본으로 한 것이며, ‘우산과 울릉이 한 섬’이라고 기술하였다.

이처럼 ‘울릉도 쟁계’ 이전의 기록에 울릉도와 독도가 혼재된 데는 태종·세종대의 도서정책인 쇄환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 울릉도 거주민을 쇄환하던 시기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있어서 두 섬이 명확하게 인지되었지만, 이후 울릉도에 사람의 거주가 금지되고, 몰래 잠입할 경우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되면서 울릉도에 인적이 끊어지고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인식마저도 모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실록』에서 울릉도에 관한 기록은 조선 초부터 1510년대(중종대)까지 꾸준히 등장하다가 그 이후로 급감하여 숙종대인 1693년 안용복의 피랍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거의 찾을 수 없다.<sup>13)</sup>

1693년 4월 안용복과 박어둔은 울릉도에서 일본 어민들에게 납치되었다가 그해 12월에 대마도를 통해서 조선에 송환되었다. 그리고 안용복은 3년 후인 1696년 3월에 다시 일본에 건너갔다.<sup>14)</sup>

『숙종실록』의 안용복의 공술에 따르면,<sup>15)</sup> 1696년 봄에 동래인 안용복은 울산에 갔다가 승려 雷憲, 寧海 출신 뱃사공 劉日夫 등과 함께 선단을 꾸려 울릉도로 향한다. 그들이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울릉도에는 다수의 일본인들이 와 있었다. 일본인을 본 안용복이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라고 꾸짖자 일본인들은 자신들은 본래 松島(독도)에 사는데 고기잡이를 하러 나왔을 뿐이므로 本所로 돌아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안용복

13) 윤유숙, 『18세기~19세기 전반 조일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 『동양사학연구』 118, 2012, 285쪽

14) 기록에 나오는 조일 양국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있었던 최초의 접촉은 1692년(숙종 18) 3월 말의 일이었다. 당시 조선 어민 53명, 일본 어민 21명이 울릉도 해역에 들어왔는데 충돌은 없었다. 이때 호키슈(伯耆州) 요나고(米子)의 어민들은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어장을 불법 침입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수적인 열세로 제지도 못하고 수확도 없이 귀국했다.(줄고, 『17세기 조일관계와 ‘울릉도 쟁계’』, 『역사와 경계』 84, 2012, 47~48쪽)

15) 『숙종실록』 숙종 22년 9월 25일(무인)

은 “松島는 子山島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라고 꾸짖고, 다음날 새벽에 배를 몰아 독도로 향하여 그곳에 있는 일본인들을 발견하고 항의하였다. 이어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일본인들을 뒤쫓다가 태풍을 만나 伯耆州의 오키(隱岐)에 표착하게 되었다.

오키도주를 만난 안용복은 자신이 1693년 도일했으며, 당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關白의 書契’까지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일본인들이 다시 우리 땅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항의하러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鬱陵子山兩島監稅將’을 가칭하고 伯耆州 太守(鳥取藩主)를 만나 1693년 피랍 당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내용의 서계를 받았었는데, 귀국 도중에 對馬島主에게 서계를 빼앗겼으며, 대마도는 중간에서 사건을 위조하여 조선에 두세 번 차왜를 보내 양국 간에 약속한 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또 다시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함부로 침범하였기 때문에 막부장군에게 직접 대마번의 죄상을 알리고 싶다고 호소하였다. 결국 호키슈 태수를 통해서 막부에 전하고자 했던 소장은 대마도의 방해로 막부에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호키슈 태수로부터 조선의 경계를 침범한 일본인 15인을 처벌하고, 안용복에게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다시 함부로 침범하는 일이 있을 때 문서를 만들어 譯官을 보내 알려오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러한 안용복의 발언 가운데 일본의 竹島와 松島가 울릉도이며 독도라는 사실은 이전 기록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당시 조선 내부에서 널리 공유되었던 정보로 보인다.<sup>16)</sup>

16) 1696년 5월에 오키에 도착한 안용복의 행적을 기록한 일본측 사료인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을 보면, 안용복은 “竹嶋는 대나무 섬이라고 하며,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다. 이것을 竹島라고 하는데 八道之圖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소지하였습니다”, “松島는 같은 강원도 내의 子山이라는 섬으로 이것을 松島라고 하는데, 이것도 八道之圖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8매로 된 ‘朝鮮八道之圖’

어떻든 2차에 걸친 안용복의 도일과 ‘울릉도 쟁계’는 조선 지식인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조정의 논의가 울릉도는 국가의 요충지이며 땅이 넓고 기름지기 때문에 결코 버려두어서는 안되는 곳으로, 일본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그곳에 진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이뤄질 정도까지 되었다.<sup>17)</sup>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조선의 변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변경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의식이 반영되어 취해진 것이 울릉도 搜討制라고 할 것이다.<sup>18)</sup>

1694년 9월 조정에서는 張漢相을 삼척첨사로 임명하여 울릉도의 地勢를 조사하도록 명하였다. 張漢相(1656~1724)<sup>19)</sup>은 울릉도 조사 후 조정에 보고서와 지도를 제출하였다.<sup>20)</sup> 『鬱陵島事蹟』에 따르면,<sup>21)</sup> 1694년(숙종 20) 9월 19일 강원도 삼척에서 출발한 장한상은 역관 안신휘 등 150여 명을 거느리고 울릉도로 출발하여 9월 20일에 울릉도에 도착, 10월 3일까지 머물면서 울릉도를 조사하였고, 10월 4일 울릉도를 떠나 10월 5일 밤늦게 삼척에 도착하였다. 장한상 일행이 섬을 일주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으며, 거리로는 150~160리로 추정하였다. 섬 군데군데 황죽밭이 있었고, 동쪽으로 5리쯤 되는 곳에 海長竹이 한쪽에 무더기로 자라고 있는 작은 섬이 하나 있었다. 일행은 수도 기간 동안 섬의

---

를 내보였다. 그리고 竹島와 조선 사이는 30리이고, 竹島와 松島 사이는 50리라고 하여 두 섬의 위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朝鮮八道之圖’에는 ‘朝鮮之八道’가 있었는데, 강원도에는 道名만 기록된 他道와 달리 강원도에는 특별히 “이 道에는 竹鳴와 松鳴가 있다(此道ノ中ニ竹鳴松鳴有之)”라는 주석이 있었다고 한다.

17)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7월 임오

18) 『숙종실록』 숙종 20년 8월 14일(기유)

19) 장한상의 이력에 대해서는 유미림, 위의 책, 68~69쪽 참조

20) 『비변사등록』 숙종 20년 10월 기유

21) 『鬱陵島事蹟』은 1694년(숙종 20)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울릉도를 수도하고 돌아온 장한상이 조정에 보고한 기록을 그의 외후손 申光璞이 정리한 것이다

지세와 樹木, 조류, 어류 등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비 개이고 구름 걷힌 날 산에 들어가 중봉에 올라보니 남쪽과 북쪽의 두 봉우리가 우뚝하고 마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三峰입니다. 서쪽으로는 구불구불한 대관령의 모습이 보이고,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되고 거리는 300여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여 독도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장한상이 언급한 동남쪽의 ‘희미한 섬’은 박세당의 『서계잡록』에 따르면 우산도(독도)임을 알 수 있다.<sup>22)</sup>

박세당은 『서계잡록』 말미에 「울릉도」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과 『臥遊錄』을 인용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한편, 1694년 9월부터 있었던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의 전말 및 수토 내용을 기록하였다. 박세당은 울릉도와 우산도는 영해에서 이틀 만에 닿을 수 있는 곳이며,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가장 높은 곳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울릉이 우산도보다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지면 육지에서 사슴과 노루들이 이따금 바다를 건너오는 것을 예사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을 명확히 구분하고 두 섬의 거리와 위치 관계를 밝히고 있다.<sup>23)</sup>

22) 장한상과 동시대의 인물로 ‘울릉도 쟁계’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박세당은 17세기 조선 사상계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그는 문집인 『西溪雜錄』의 말미에 「울릉도」라는 항목을 두고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와 삼척영장 장한상이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온 후 조정에 보고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박세당은 장한상이 말한 동남쪽의 ‘희미한 섬’을 ‘우산도’로 명명하였다. 『서계잡록』 「울릉도」의 번역문과 원문은 유미림의 위의 책, 369~398쪽 참조.

23) 『西溪雜錄』 「鬱陵島」  
蓋二島去此不甚遠一颿風可至于山島勢卑不因海氣極晴朗不登最高

이후 신경준에 『강계고』에 이르면 울릉·우산 2도설로 명확하게 기록되었으며,<sup>24)</sup> 이후 관찬기록이나 개인문집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별도의 섬으로 우리의 땅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 3. 18세기 지식인들의 울릉도·독도 기술

임진왜란 후 조선 지식인들의 대일관은 적개심과 소중화적 화이의식에 입각한 이적관과 문화적 무시 속에서 일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17~8세기에 접어들면서 실학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식인들이 화이의식에서 점차 탈피하게 되고, 또 일본을 기행한 통신사행원들의 傳聞과 그들이 남긴 일본사행록을 통해 일본사회의 실상과 변화가 전해지면서 일본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일본에 대한 재인식을 주장하면서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학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연구를 통해 일본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 그 결과 그들은 통신사행원들의 일본사행록을 제외하고는 일본에 대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으며, 그들의 일본관은 다른 그룹의 지식인들보다 참신하고 개방적이었다.<sup>25)</sup> 이러한 실학자들의 자국사에 대

頂 則 不可見 鬱陵稍峻風浪息 則尋常可見麋鹿態獐往往越海出來

24) 유미립, 위의 책, 62쪽.

25)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익, 안정복, 이맹휴 등 기호 남인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일본에 관해 비록 일관된 저술이나 논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록을 남겨 일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새로운 일본인식을 제창하면서 일본연구를 주도해나갔다.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일본을 주제로 쓴 것만 22개 항목에 달하고 있다. 그 외에 일본의 풍속, 지리, 문물 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항목이 26개나 되며, 한일관계에서의 외교적인 실패에 관한 반성과 전망, 장래의 군사적·외교적 대책 등을 취급한 항목이 21개조에 달한다.(하우봉,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研究』, 一志社, 1989, 9~10쪽, 54~57쪽)

한 역사기술의 변화 및 대일인식의 변화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그들의 기술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음은 18세기 지식인들의 울릉도·독도 관련 기록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표 1〉 18세기 지식인들이 남긴 울릉도·독도 및 안용복 관련기록

번호	편·저자	문집명	간행년도	내용
1	李瀾(1681/숙7~1763/영조39)	『星湖僿說』 권3, 『天地門』, 鬱陵島	1740년(영조16)경	-울릉도의 역사전개, '울릉도 쟁계'의 전말, '안용복전' -울릉도·독도 인지 -안용복의 처벌논의와 남구만·윤지완의 의견 -대마도의 '울릉도 쟁계' 책임론
3	李孟休(1713/숙중39~1750/영조26)	『春官志』 第3冊 附錄, 『鬱陵島爭界』	1744년(영조20)	-울릉도의 역사전개 -울릉도 쟁계의 전말 -안용복전, 안용복의 공 -안용복의 처벌논의와 남구만·윤지완의 의견 -대마도의 '울릉도 쟁계' 책임론
3	安鼎福(1712/숙중38~1791/정조15)	『順菴集』 권7, 『與李廷藻(家煥)書』	제자 黃德吉(1750~1827) 편찬	-별도항목 없이 간략한 기술 울릉도의 역사전개 및 안용복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
4	申景濬(1712/숙중38~1781/정조5)	『疆界考』4. 昭代/울진현, 『鬱陵島·安龍福事』	1756년(영조32)	-울릉도의 역사전개 -울릉도 쟁계에서 남구만의 역할 - 울릉도·독도 인지 -안용복전' 별도항목, 안용복의 공 - 대마도의 '울릉도 쟁계' 책임론
5	元重舉(1719/숙중45~1790/정조14)	『和國志』 권3, 『倭館事實』, 『安龍福傳』	1764년~1777년	-울릉도의 역사전개 -『춘관지』 참조 -안용복전' 별도항목, 안용복의 공 - 대마도의 '울릉도 쟁계' 책임론
6	成大中(1732/영조8~1809/순조9)	『青城雜記』 권3, 『醒言』, 安龍福 『日本錄』, 『附安龍福事』	1790~1801년 작성상/ 1806년 성해응 가필	-울릉도 역사, 자연환경 기술없음 -『安龍福事』별도 항목 -『춘관지』의 안용복 기술 참조 - 대마도의 '울릉도 쟁계' 책임론
7	李肯翊(1736/영조12~1806/순조6)	『練蔡室記述』, 別集, 권12, 『邊國典故』; 別集, 권19, 『歷代典故』, 新羅屬國	1776년(영조52)	-울릉도의 역사, 『통문관지』와 동일 -울릉도 쟁계 『춘관지』와 동일 -안용복의 공 -대마도의 '울릉도 쟁계' 책임론
8	尹行恮(1762/영조38~1801/순조1)	『石齋稿』 권9, 『海東外史』	1801년(순조1)	-울릉도 역사, 자연환경 기술 없고 안용복에 대한 기록만 있음. -『춘관지』 참조 -안용복의 공 -대마도의 '울릉도 쟁계' 책임론

## 1) 실학자들의 기술

### ① 李瀼(1681~1763)

이익은 『성호사설』<sup>26)</sup>에서 「울릉도」라는 항목을 정하고 울릉도의 역사전개와 ‘울릉도 쟁계’의 전말 및 안용복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울릉도 쟁계’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남구만의 『藥泉集』과 조선후기 대일 외교집인 『춘관지』의 편찬자이자 아들인 이맹휴의 정보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먼저 울릉도가 신라시대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줄곧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1694년에 울릉도를 조사하고 돌아온 張漢相이 조정에 보고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羽陵島이든, 礮竹島이든 울릉도가 우리나라에 속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며, 그 부근의 섬도 또한 울릉도의 부속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기술하여 울릉도와 부속 섬(독도)이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울릉도 쟁계’ 조선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온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서 거리상으로도 멀고, 전란에 처한 상황을 틈타 일본 점령한 것은 이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설사 약탈하였더라도 조일간에 신의로 화친을 맺은 후에는 당연히 조선에 돌려주어야 하며, 더구나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인 이상 조선인들의 울릉도 왕래를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확실하게 주장하였다면 일본측이 그토록 오랫동안 울릉도에 대한 주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안용복에 대해서는 「울릉도」의 뒷 부분에서 기술하였다. “동래부 戰

26) 『성호사설』은 이익이 40세 전후부터 평소에 기록해 둔 글과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을 1740년 경에 집안 조카들이 정리한 책이다.

27) 성호는 그의 저술에서 아들인 盟休의 견해를 가끔 인용하기도 하였다. 『성호사설』 권16 人事門 「水軍」, 권17 인사문 「日本忠義」와 『星湖先生全集』 권25 「答安百順問目」 등이 그 예이다.

船에 속한 노군으로 왜관에 출입하여 왜어에 능숙한” 안용복이 1693년 여름에 풍랑으로 울릉도에 표류하였다가 五浪島(隱岐島)의 어부들에게 잡혀갔을 때 안용복이 오랑도 도주(隱岐島主)와 伯耆州 태수에게 울릉도와 자산도(우산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밝혔고, 그것에 관해 막부로부터 ‘契券’을 받았으나 귀국길에 長崎에서 대마도주의 사주를 받은 長崎 도주에게 契券을 빼앗겼으며, 결국 대마도로 압송하여 구금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당시 막부는 안용복에게 서계를 주어 울릉·우산 두 섬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안용복을 본국으로 호송하려고 하였는데도 대마도주가 그 서계를 빼앗고 대마도에서 50일간 구금하다가 왜관으로 보내고 나서도 40일을 잡아두었다고 하였다. 당시 이러한 사실을 동래부사에게 말했지만 부사는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안용복에게 월경죄로 2년의 형벌을 내렸으며, 이에 울분을 참을 수 없었던 안용복은 1695년 여름 승려 5인과 사공 4인과 울릉도에 갔다가 다시 왜선을 만나게 되었다. 松島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우연히 울릉도에 왔을 뿐이라고 말하는 왜인들에게 “松島는 원래 우리 자산도(우산도)”라고 하고, 도망가는 왜인들을 뒤쫓아 옥기도(隱岐島)에 갔다가 伯耆州, 즉 돗토리번까지 갔다. 당시 안용복은 鬱陵島搜捕將이라 칭하고 伯耆州 태수를 만나 전후 사정과 대마도의 죄상을 막부에 직접 보고하는 소장을 올리고자 도일하였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안용복은 伯耆州 태수에게 막부에 올리는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전 대마도주(宗義眞)가 막아서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요구하는 것은 모두 지킬 것이며, 여기는 자에 대해서는 중벌로 처하겠다는 伯耆州 태수의 답변을 받아냈다고 기록하였다. 이로써 1696년 안용복의 도일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과 온갖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섬(自島)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바람직한 조일관계를 저해하는 대마도의 횡포를 막부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과 대마도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돗토리번주로부터 이후 일본인

이 금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울릉도 쟁계' 즉,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간의 영유권 논쟁의 책임은 대마도에 있으며, 심지어 막부가 울릉도의 조선 영유권을 확인해 주었는데도 대마도가 은폐하고 방해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 안용복의 귀국 후 처리과정에 대한 조정의 논의도 소개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안용복을 참형에 처하라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나 안용복 개인의 범법 사실과 국가적 이해관계를 구분지어 처리하려는 영돈령부사 윤지완과 영중추부사 남구만에 의해서 안용복에 대한 처벌 방향이 참형 대신 귀양으로 감형되었다는 내용이다.<sup>28)</sup>

마지막에서는

“안용복은 곧 영웅호걸인 것이다. 미천한 일개 군졸로서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하여 強敵과 대항하여 그 간사함을 꺾어버리고 여러 代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땅을 회복하였다...그런데 조정에서는 상 대신 刑罰을 내리고, 나중에는 귀양을 보내 꺾어버리기에 주저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울릉도가 비록 척박하다고 하나 대마도도 한 조각의 농토가 없는 곳으로서 倭人의 소굴이 되어 歷代의 우환거리가 되고 있다. 울릉도를 한 번 빼앗긴다면 이는 또 하나의 대마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 앞으로 올 양화가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이로써 논하건대 龍福은 한 세대의 공적을 세운 것 뿐 아니었다.”

라고 하여 안용복을 탁월한 외교적 능력을 가진 ‘영웅호걸’로 보다 적극적인 평가하고, 그와 같은 인물은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하여 장수급

28) 『성호사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윤지완과 남구만의 발언 내용의 핵심은 안용복이 월경한 죄는 있지만 조선이 막부와 대마도를 통하여 교섭해 왔는데 안용복이 대마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일본에 간 행위는 조선과 막부가 대마도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통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므로 대마도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안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안용복을 참형에 처하는 것은 국가의 좋은 계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안용복의 처벌을 반대하였다는 것이다.

으로 등용했어야 한다고 평하였다. 이는 남구만이 “안용복이 비록 외람  
되어 사단을 만들었다고 하나 사람됨이 녹록하지 않은 듯하니, 위급할  
때에 혹 쓸 만할 것입니다.”<sup>29)</sup>라고 하며 안용복의 처벌을 반대한 입장  
에서 훨씬 더 나아간 평가이다. 즉 국가가 범죄자로 간주했던 안용복을  
이익은 ‘영웅호걸’로 재평가한 것이다.

## ② 李孟休(1713~1751)

이익의 장남인 이맹휴는 예조정랑으로 1744년(영조 20) 왕명을 받아  
대일의교관계 자료집인 『春官志』 4권<sup>30)</sup>과 『接倭歷年考』 2권을 편찬  
하였다. 18세기 이후 조선 지식인들의 울릉도 관련 담론에서 빠지지 않  
는 주요 텍스트였던 『춘관지』에는 ‘울릉도 쟁계’라는 제목으로 1693년  
부터 1696년 10월까지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간의 분쟁 내용이 정리되  
어 있다. 그리고 『성호사설』과 마찬가지로 뒷부분에는 안용복에 관한  
자세한 기술이 있다.

『춘관지』의 「울릉도쟁계」는 구체적인 전거에 입각한 기술과 당시  
양국 간에 주고받았던 서계 등 직접적인 사료 활용이 많은데,<sup>31)</sup> 이것은  
대일관계 자료집이라는 『춘관지』의 특성상 울릉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29) 南九萬, 『藥泉集』 권3, 「書」, 答柳相國

“龍福雖曰汎濫生事 然其爲人似非庸碌 緩急或不無可用…且此人以鬱  
島屬我國事 兩度辨明於日本 而自我殺之 則乃所以快馬島之心 增馬島  
之氣 使之益長其姦 而自我必欲發明鬱島之爲我地之意 則其勢不能不  
因此而有所摧屈矣 如何如何 因此來備郎聞之 備局諸宰之意亦有以爲  
不必殺者云 幸望更詢而處之如何”

30) 『춘관지』는 1744년(영조 20) 왕명을 받아 예조좌랑이었던 李孟休가 편찬한  
것을 1781년(정조 5) 조카 李家煥이 정조의 명으로 증보·완성한 사서이다.

31) 1693년 12월 차왜 橘眞重이 가져온 대마도의 서계를 비롯하여 1696년 10  
월 대마도에 파견된 문위역관을 통해서 막부가 내린 일본인의 竹島(울릉  
도)도해 금지령이 조선에 전해질 때까지 조선과 대마도 간에 주고받은 서  
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을 한일관계의 주요쟁점으로 파악한 때문으로 보인다.

먼저, 신라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울릉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신증동국여지승람』, 『東史』, 『芝峰類說』 등을 근거로 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竹島, 三峯島, 于山, 羽陵, 武陵, 礮竹은 모두 울릉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는 있으나 울릉도의 부속 섬(독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松島는 곧 芋山島인데, 우산도도 우리나라 국경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한 안용복의 발언을 적었다.

이명휴는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간의 논쟁이 일찍이 1614년(광해군6)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sup>32)</sup> 이는 『춘관지』 편찬 당시 그 자신이 ‘울릉도 쟁계’를 전후한 對日관련 자료를 직접 입수하여 볼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울릉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일본(막부)의 뜻이 아니라 대마도 왜인의 변덕스러움”과 관련된 것으로 대마도의 ‘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한 점에서는 이익과 같은 입장이었다. 따라서 막부가 서계까지 써주고 돌려보낸 안용복을 대마도에서 억류한 까닭은 대마도가 자신들의 잘못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울릉도 쟁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울릉도와 竹島는 한 섬이며 울릉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사실도 전거를 명확하게 밝혔다.

안용복의 행적에 대해 기술하면서 대마도주가 울릉도를 竹島라 칭하고 사자를 파견하여 울릉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막부가 아닌 대마도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안용복의 1696년 도일은 그가 대마도의 비행에 대해 동래부사에게 말했지만 중앙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대마도의 기만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여겨 자발적으로 계획한 것이라

32) “判書李晔光芝峰類說云 鬱陵壬辰變倭被倭焚掠無復人烟 近聞倭占據礮竹島 或謂礮竹卽鬱陵也 此說亦據傳聞而云 爾倭人執此爲案 自萬曆甲寅以後嘵嘵不已 然此亦非日本之意 只馬島倭聘詐如此…”

고 보았다. 그리고 울산의 商僧 등을 유인하여 울릉도에 가서 3일 동안 왜선을 기다렸다고 기술함으로써 2차 도일에 대한 안용복의 주도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안용복이 직접 伯耆州 태수를 만나 전후사정과 대마도의 죄상을 막부에 보고하는 소장을 올리고자 도일하여, 伯耆州 태수에게 막부에 올리는 소장을 주었으나, 대마도주의 아버지(전 대마도주 宗義眞)의 방해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울릉도에 도일한 일본인은 중벌에 처하겠다는 伯耆州 태수의 답변을 받아냈고, 그 결과 대마도주가 동래 부사에게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1696년 10월 대마도가 問慰譯官을 통해 조선에 전해진 막부의 ‘竹島(울릉도)도해 금지령’의 배경에는 안용복의 역할이 컸다고 이해한 것이다. 또한 이익과 마찬가지로 안용복의 처리를 둘러싼 조정의 논의가 영돈령부사 윤지완과 영중추부사 남구만에 의해서 처벌방향이 달라졌으며, 안용복의 도일은 조선정부의 울릉도 수토제 실시의 계기가 되었고, “왜가 지금도 다시는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고 지칭하지 못한 것은 모두 용복의 공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상에서 이맹휴는 조일관계 속에서 대마도의 역할에 대해 시종일관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울릉도 쟁계’를 비롯하여 조일 간에 야기된 발생한 다양한 문제는 대마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입장을 암묵적으로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안정복(1712~1791)

이익의 제자인 안정복은 울릉도·독도에 대해 『東史綱目』<sup>33)</sup>과 『順菴先生文集』<sup>34)</sup>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동사강목』에서는 신라 지증왕3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항복한 사실과 고려 의종 11년에 金柔立

33) 『東史綱目』 제3상, 신라 지증왕3년, 9상 의종 11년, 제10하 고려 고종 30년

34) 『順菴先生文集』 권7, 「書」, 與李廷藻家煥書

을 파견하여 주민들의 울릉도 거주 여부를 확인한 사실, 고려 고종 30년에 울릉도가 비옥하다는 보고를 받고 주민을 이주하려 했으나 중단하였다는 사실 등 울릉도의 역사전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간의 영토문제와 안용복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기술은 없다.

그리고 『순암선생문집』에서는 이익의 종손이며, 성호학파의 일원인 李家煥(1742~1801)에게 보낸 편지에 변경의 해양 방어를 언급하면서 “海島로 말하자면 숙종 계유년(1693, 숙종 19)에 안용복이 없었다면 鬱陵島가 필시 왜인들에게 점거당했을 것입니다.”<sup>35)</sup>라고 언급하면서 안용복을 고려시대의 서화에 건주어 평가하였다. 이는 안용복의 외교적 능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스승인 성호 이익과 동문인 이맹휴<sup>36)</sup>의 견해와 같다.

#### ④ 申景濬(1712~1781)

한편 성호학파의 영향을 받은 申景濬(1712~1781)은 『강계고』의 「鬱陵島·安龍福事」<sup>37)</sup>에서 울릉도·독도 및 안용복에 주목하였다. 그는 1756년(영조 32)에 『강계고』를 집필하였고, 1769년(영조 45)에는 「동국문헌비고」의 편찬에 참여하여 1770년에 완성하였다.<sup>38)</sup>

신경준은 먼저 울릉도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물산에 주목하였다. 그는 울릉도는 본래 우산국으로 신라에 복속되었으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성종대에 이뤄진 三峯島 탐사에 이르기까지 울릉도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鬱은 蔚이라고도하고, 芋라고도 하고, 武라고도

35) 위와 같음.

36) 이맹휴는 안정복보다 1년 연상으로 안정복과 자주 만나 토론을 나누고 인간적으로 꽤 가까운 교유관계를 유지하였다(『順菴先生文集』 권27, 「李萬頃醇叟遺事」).

37) 신경준, 『疆界考』 4, 「鬱陵島·安龍福事」

38) 『영조실록』 영조 46년 8월 5일(무인)

하는데,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도이다. 울진현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일본의 隱岐州와 서로 가깝다”라고 동해에 위치한 두 섬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또한 『여지지』를 인용하여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지만, 여러 지도와 자료를 살펴보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이르는 松島로, 대개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를 영역으로 한 국가이며,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우산도의 존재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신경준이 『춘관지』를 참고하면서도 별도로 우산도의 존재를 자신의 견해로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경준의 울릉도와 독도인식은 이후 『동국문헌비고』에 반영되면서 관찬지리지에서 울릉과 우산 1도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sup>39)</sup>

신경준도 이맹휴와 마찬가지로 울릉도 논쟁은 1614년에서 시작되었으며, 문제의 발단이 대마도의 ‘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고 그 책임을 대마도에서 찾았다. 그리고 ‘울릉도 쟁계’ 처리 과정에서 남구만의 활약에 대해 언급하였다. “강토는 조종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하여 신라 이래 울릉도의 역사성을 강조하여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3년마다 실시되는 울릉도 수토제가 장한상의 울릉도 파견에서 비롯되었다고 소개하였다.

그는 「安龍福事」라는 제목으로 안용복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이의에서 이맹휴로 이어진 안용복 관련 내용이 신경준에 오면 「安龍福事」라는 별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체제와 내용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1693년 안용복의 도일과정이 『성호사설』과 『춘관지』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미루어 이것들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1696년 안용복의 도일에 대해서는 안용복이 접위관에게 1693년 사건의 전말을 말하였지만 조정에 전달되지 않았고, 양국 사이에서 대마도

39) 유미림, 위의 책 110~118쪽

의 농간이 더욱 심각해져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1696년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들에게 안용복이 일본인이 말하는 松島는 우산도이며,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내용도 기술하였다. 또한 안용복이 鬱陵監稅官<sup>40</sup>이라 칭하고 伯耆州 태수를 만난 자리에서 조일 교섭 중에 초래된 대마도의 농간과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에 관한 내용의 편지 한 통을 막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대마도의 방해로 성사되지는 못하였다고도 기록하였다. 대신 伯耆州 태수가 대마도가 다시 경계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사자를 보내 알려달라는 답변을 주었으며, 결국에는 대마도가 동래부사에게 글을 보내 사과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였다. 이어 안용복의 처리를 둘러싼 조정의 논의와 수토제도의 실시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안용복에 대해서는 “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울릉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용복의 공이다.”라고 평가하였다.

#### ⑤ 李肯翊(1736~1806)

실학자 李肯翊(1736~1806)은<sup>41</sup> 『練藜室記述』, 『邊圉典故』와 『歷代典故』<sup>42</sup>에서 『지봉유설』·『춘관지』·『통문관지』를 저본으로 울릉도를 소개하였다. 『변어전고』 ‘諸島’에서 신라시대 우산국 복속사실부터 임진왜란 직후까지 울릉도의 역사를 기술하고, 『춘관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우산도(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는 『통문관지』를 전거로 1614년 대마도가 조선에 울릉도 조사를 요청한 사실은 대마도가 울릉도에서 나는 풍부한 물산과 사자에 대한 조선측의 후한 접대를 바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막부와는 관계없는 일이었다고 이해

40) 『星湖僿說』에서는 鬱陵島搜捕將라고 되어 있다.

41) 이궁익의 가계와 학문적 배경에 대해서는 조은희, 위의 논문 참조.

42) 『練藜室記述』 별집, 권12, 『邊圉典故』, 諸島; 별집, 권19, 『歷代典故』, 新羅屬國

하였다.

‘울릉도 쟁계’에 대해서는 『춘관지』와 동일하다. “왜가 다시는 울릉도를 가리켜 일본 땅이라고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모두가 안용복의 공”이라고 평가하고, 안용복에 대한 처벌은 윤지완과 남구만 덕분에 감형되어 유배된 사실도 기술하였다. 이어 1695년 대마도주가 동래부사에게 ‘의문 4개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1614년 동래부사 박경업의 답서를 비롯하여 표류민 송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통문관지』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한편 「역대전고」에서는 『동국여지승람』 등을 근거로 신라시대 우산국의 복속에 대해서 기술하고 신라시대부터 조선초기에도 왜구 문제를 염려하여 울릉도 유민들을 쇠환한 사실을 언급하고 참고로 「변어전고」를 소개하였다.

『연려실기술』 속에서 표현된 조선후기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이극익의 기록은 대부분 이맹휴의 『춘관지』와 『통문관지』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별다른 특징이 없다. 그럼에도 이극익이 자신의 문집에서 울릉도의 역사와 ‘울릉도 쟁계’ 및 안용복에 관한 기술을 수록했다는 것은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의 문제가 18세기 조선 사회에서 주요한 사안으로 다뤄졌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 ⑥ 尹行恁(1762~1801)

石齋 尹行恁(1762~1801)은 시문집인 『石齋稿』 권9 「海東外史」에서 안용복에 관한 기록이 남겼다. 그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에 충실한 논객 학자였지만, 북학과 실학자들은 물론 그 주변 인물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했던 인물이다.<sup>43)</sup> 그는 규장각의 여러 직책을 역임하면서 이덕

43) 윤행임은 1782년(정조 6)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 규장각 待敎와 世子侍講院兼說書를 지냈고, 의성·고양·직산·과천 등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그는 정조대에는 관료로서 비교적 평탄하게 지냈으나 정조 사후 시파와 벽파의 정쟁 속에서 시파에 속하여 벽파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무(1741~1793)·李書九 등 4검서와 교류하였으며, 1763년 통신사행에 書記로 참여하였던 원증거와도 교류하였다. 이덕무의 묘갈명에는 원증거를 통해 이덕무와도 교류한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윤행임과 친밀하였던 尹可基는 연암 및 그 주위 인사들과 관계가 돈독한 인물로, 규장각의 4검서였던 박제가와 유득공은 모두 그와 사돈지간이었다.<sup>44)</sup>

『석재고』<sup>45)</sup> 권9 『海東外史』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과 지명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 등 전란과 관련이 있는 인물과 지명이 중심이 되어있다. 인명 가운데 안용복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울릉도 쟁계’ 당시 안용복의 활동이다. 『성호사설』이나 『춘관지』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 보아<sup>46)</sup> 『성호사설』이나 『춘관지』 등 관련 자료를 참고

---

조정의 공론을 통한 정국 운영이라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예조판서에서 외직인 전라감사로 밀려난 인물이다. 그리고 곧이어 5일만에 任時發 凶書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신지도로 유배된 지 넉 달 뒤인 1801년 9월 16일에 賜死되었다. 문집으로는 『石齋稿』, 『石齋別稿』, 『石齋日錄』, 『海上清云』, 『性理編』 등이 있다. 석재 윤행임의 생애와 학문 경향에 대해서는 김윤조, 『石齋 尹行恠 연구: 생애와 학문 경향을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9, 1995 참조.

44) 박제가의 장녀는 윤가기의 장남인 尹厚鎮(1775~1802)와 결혼하였고, 유득공의 장남 本學(1770~?)의 부인 윤씨는 윤가기의 장녀였다. 또한 당대의 감식가로 유명한 觀軒 徐常修(1735~1793)는 윤가기의 고모부였고, 유득공과 사돈 사이인 南鴻來 역시 윤가기와 가까운 처지였다.(김윤조, 위의 논문, 254~255쪽)

45) 『석재고』에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기록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석재고』 권11에는 『東三攷』 8권이 소개되어 있는데, 신라·고구려·백제의 역사를 수집하여 기록한 책의 서문이 전하고 있으며, 평안도에 부임하는 외종숙 趙傲에게 고구려 동천왕의 무덤을 확인해주도록 부탁하거나(『送外從叔 荷樓趙公傲出按關西序』), 고구려를 침입한 수양제와 당태종에 대한 기록이 중국쪽 史書에 실리지 않은 점과 전공을 세운 인물에 대해서 전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글(권7, 『答聖汝』)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권9 『海東外史』에는 우리나라의 인물과 지명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46) 『성호사설』과 『춘관지』의 계해년(1693)에 안용복이 五郎島로 끌려갔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행임은 ‘울릉도 쟁계’를 에도막부(江戶幕府)와 관계없이 대마도 독단으로 주도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당시 조정에서는 ‘울릉도 쟁계’ 과정에서 자행된 대마도의 농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였다. 때문에 안용복은 울릉은 일본의 경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1693년 일본에 잡혀갔을 울릉도·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는 막부의 서계를 伯耆州 태수를 통하여 받은 사실, 조일교섭 속에서 문제가 되는 대마도의 행태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그리고 1696년에는 울릉도에 있던 일본인들을 쫓아내고 자발적으로 도일하여 伯耆州 태수를 만난 사실을 기록하면서 “鬱陵島監稅官을 칭하여 堂에 들어가 태수와 항례하고 말하기를 대마도가 중간에서 矯誣함이 어찌 鬱陵一事일 뿐이겠는가?”라고 하여 도일 배경에는 울릉도문제와 조일무역에서 대마도의 행태를 막부에 고발하기 위한 것도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2차에 걸친 안용복의 도일로 ‘울릉도 쟁계’가 종결되고,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기술하였다. 안행임은 “울릉도가 웨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의 공으로 장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면서 ‘안용복전’을 마무리하였다.

윤행임이 『석재고』에서 울릉도의 자연환경이나 역사에 관한 언급없이 안용복에 관한 전기만을 다룬 이유는 그가 『석재고』에서 임진왜란 당시 명의 지원을 얻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洪純彥의 이야기 등을 실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역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쪽보다는 『석재고』를 저작 당시 조선사회에서의 효용성에 쪽에 비중을 두고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sup>47)</sup>

되어 있으나 『석재고』에서는 을해년(1695)으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

47) 김윤조, 위의 논문, 262~263쪽

## 2) 通信使 참가자의 기술

이외에도 통신사행에 참여한 인물 가운데 울릉도·독도 또는 안용복에 관한 기록을 남긴 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원중거와 성대중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1763년 계미통신사행에 서기로 참여하여 일본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다. 이들은 연암학파의 일원으로서 북학과 실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으며, 박지원·이덕무·이서구·박제가·유득공 등 이 용후생학과 실학자들과 밀접하게 교류한 인물들이다.

### ① 元重舉(1719~1790)

원중거는 成大中·金仁謙과 함께 1763년 계미통신사행의 서기로 발탁되어 일본을 다녀온 뒤 『和國志』와 『乘槎錄』을 저술한 인물이다.<sup>48)</sup> 원중거의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승사록』 권3 人卷의 「倭館事實」과 「안용복전」을 들 수 있다. 「倭館事實」은 조선초기부터 1744년(영조 20)에 이르기까지 왜관 내에서 이루어진 사절의 왕래와 조일무역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1693년(숙종 19)에 시작된 ‘울릉도 쟁계’에 관한 설명도 있다.

서두에서는 울릉도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으며 礮竹島 또는 于山으로 불린다고 하고, 신라 지증왕대 이래 1614년(광해 6)까지 울릉도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이어 ‘울릉도 쟁계’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일본이 말하는 竹島는 울릉도이며,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문헌에서뿐 아니라 대마도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조선인들을 붙잡아 간 것은 誠心이 부족한 처사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울릉도에 관한 논쟁이 끝나지 않자 동래인 안용복이 1696년에 伯耆州에 들어가 문서로 상황을 말하고

48) 『화국지』와 『승사록』에 대해서는 하우봉, 위의 책(2006), 170쪽 참조.

대마도의 잘못을 말하니 대마도측이 자신들의 과오가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울릉도에 일본인의 출입을 금하는 문서를 동래에 보내게 되었으며, 조정에서 무관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5년을 주기로 한 울릉도수토가 실시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안용복전』에서는<sup>49)</sup> 울릉도에 관한 영토분쟁은 대마도의 ‘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고 막부를 별도로 대마도와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은 다른 실학자들의 이해방식과 동일하다. 그러나 원증거는 대마도에 대해 한층 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언급하고, 울릉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안용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더욱 더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기록들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대마도인들은 울릉도가 일본의 竹島로 山陰道の 伯耆州에 속한다고 하며 伯耆州 태수를 꺾어 울릉도에 들어와 어채행위를 하다가 울릉도에서 안용복 등을 보고 도리어 국경을 침범하였다고 하면서 줄로 묶어 대마부로 압송하였다고 한다. 일본에 간 안용복은 굴복하지 않고 대마도주에게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말하자 대마도주가 伯耆州로 보냈다는 것이다. 안용복가 伯耆州 태수에게 ‘울릉도의 일’과 ‘대마도가 속임수를 쓰는 정황’을 말하자 伯耆州 태수는 관백에게 보고하고, 동래부에 보내는 서계를 써주었는데, 귀국 도중에 肥前州 태수가 서계를 빼앗고 안용복을 대마도로 보내버렸다고 하였다. 안용복의 귀국 과정에 대해서도 조일간에 합의된 표류민 송환 방식이 아니라 “대마부에 잡혀 있는 동안 뇌물을 써서 고향집에 소식을 전함으로써 동래부에서 館倭에게 말하여 풀려나 돌아올 수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귀국한 안용복은 동래부사와 차왜의 접대를 위해 동래에 내려온 접위관에게도 울릉도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용복이 1696년 울산으로 가서 도일하게 되었으며, 울릉도에 이르러서는 뇌헌 등 동행한 뱃사람들에게 반드시

49) 『안용복전』만을 별도로 고찰한 연구로는 진재교, 위의 논문이 있다.

왜인들이 이를 것인데 자신의 말을 따르는 자는 목숨도 건지고 또 이의도 있을 것이나 따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행한 사람들을 독려한 모습 등은 다른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또한 안용복이 2차 도일 당시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들에게 “이곳은 芋山島이다. 너희들은 우리나라에 우산도가 있다는 말을 알지 못하였는가?”라고 하여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의 영토권 확인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원중거는 울릉도의 영토분쟁에 대한 근심이 안용복 덕분에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정에서 무신 장한상을 울릉도로 보내어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5년마다 울릉도 수토제가 실시되었고, 뒤에는 10년 관례가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영동지방으로 귀양간 안용복의 이후 행적에 대해 그곳에서 능로군으로 생의 마쳤다고 전함으로써 안용복의 말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안용복전』의 말미에는 伯耆州 태수, 즉 돗토리번주에 대한 평가가 있다. 대마도주와 달리 사람됨이 忠厚하고 너그럽다고 평가하고, 일본 내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마도인과는 사뭇 다르다고 보았다. 안용복에 대해서는 대마도인들의 악행을 일본 본토에 널리 알리고 국가의 위엄을 일행에 떨쳤으니 “대마도 왜인들이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에 다시 안용복 같은 이가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다.”라고 평가함으로써 안용복을 조일관계 속에서 대마도의 이증성을 폭로한 인물로 기술하였다. 이로써 원중거는 『안용복전』의 저술 의도가 일본을 경계하는 데 있음을 명료히 하였다.

## ② 成大中(1732~1809)

노론계 북학과 실학자이다. 그는 朴趾源·朴齊家·李德懋·南公轍 등과 교유가 있던 인물이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통신사행에 참여한 가문이며,<sup>50)</sup> 조선후기의 실학자 成海應이 그의 아들이다. 성대중은 저서로 『靑城雜記』와 『日本錄』<sup>51)</sup>을 남겼는데, 여기에는 안용복의 삶과

‘울릉도 쟁계’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다.

『청성잡기』 권3, 「醒言」에 의하면 성대중은 영조대 공조참판을 지냈던 金用鎌의 소개로 이맹휴의 『춘관지』를 알게 되면서 안용복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당시 성대중은 『춘관지』의 안용복전을 베껴서 보관하였다가 울진수령을 역임하던 당시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 산삼을 캐던 백성들이 발각되어 문제가 되었을 때, 조정에서 강원도 감영에서 ‘울릉도 쟁계’의 전말을 묻자 이맹휴의 『춘관지』를 자료로 소개하였다고 한다. 성대중은 ‘울릉도 쟁계’는 안용복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안용복은 울릉도가 본래 조선 땅인데도 일본 어민들이 함부로 짐거하고, 도리어 우리나라 어부가 잡혀가서 곤욕을 당하였으므로 격분하여 어부들을 모아 일본에 가서 伯耆州 태수에게 항의하여 울릉도를 돌려받았다고 밝히고, 안용복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일본록』에서는 「附安龍福事」라는 제목으로 안용복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맹휴의 『춘관지』 「울릉도 쟁계」 가운데 뒷부분의 안용복 관련 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리고 뒷부분은 『청성잡기』의 권3 「성언」에서 안용복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이러한 성대중의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록은 그의 아들인 성해응(1760~1839)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성해응은 19세기 연암계열의 학자로 「菴陵島

---

50) 중증조부 成琬(1639~1710)은 1682년(숙종8) 통신사행에 제술관으로 참여하였고, 종조부 成夢良(1673~1735)은 1719년 통신사행에 서기로 참여하였다. 당시 성대중은 그의 부친인 성효기가 사행에 참여할 차례였으나 63세의 고령으로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대중은 연로한 부친을 대신하여 1763년 재미통신사행의 서기로 참여하였다(손혜리, 『연경재 성해응 문학연구』, 소명, 2011, 23~36쪽 참조).

51) 성대중의 『일본록』은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1책은 「槎上記」라는 소제목 하에 1763년 8월 3일 통신사 출발부터 1764년 7월 10일 조정에 돌아와 復命할 때까지의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고, 2책은 「日本錄」과 「靑泉海遊錄鈔」로 이루어졌으며 견문록의 성격을 띤다. 『일본록』의 뒷부분에는 「附安龍福事」라는 글을 실어놓았다.

志』와 『題安龍福前後』라는 울릉도에 관한 두 편의 글을 남겼는데, 울릉도와 독도에 관하여 특별히 새로운 사실을 밝히거나 주장한 것은 아니고 아버지인 성대중의 그것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sup>52)</sup>

성대중은 성호 이익과 이맹휴와 마찬가지로 안용복의 주장을 빌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안용복의 1696년 도일은 ‘울릉도 쟁계’의 해결뿐만 아니라 조일관계 속에서 농간을 일삼는 대마도의 처사를 막부에 알리는 것에도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울릉도 쟁계’의 발단이 대마도라는 점에도 별다른 이의를 보이지 않는다.

#### 4. 對日談論으로서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

이상에서 18세기 조선지식인의 울릉도·독도 정보, 그리고 안용복의 도일과 울릉도 해역을 둘러싼 양국의 영토분쟁을 이해하는 방식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18세기 지식인들의 울릉도·독도 관련 기술의 특징을 정리하고, 18세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대일담론으로서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은 어떻게 이해되고 공유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18세기 조선사회의 대일담론으로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기록한 인물들의 면면은 실학자 내지 그들과 교류하였던 통신사행 관련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실학자, 특히 기호남인계 실학자인 성호 이익의 학풍을 계승한 성호학과와 북학과인 연암학과 또는 그들과 교류한 인물들이며, 그 가운데에는 통신사행원의 일원

52) 성해응의 울릉도·독도 인식에 대해서는 이원택, 「성해응의 지정학과 울릉도, 우산도 인식」, 『韓國思想史學』41, 2012 참조.

으로 일본을 직접 견문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들이 울릉도와 독도 관련 기록을 남긴 데에는 18세기 실학자들의 對日觀 내지 인식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지식인들의 대일인식은 감정적인 적개심과 화이적인 문화의식에 의해 객관성과 정확성을 결여한 것이었다.<sup>53)</sup>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대일인식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통신사행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일본을 직접 견문한 통신사행원들이 기록한 일본사행록을 통하여 일본의 사회상과 문물이 점차 소개되었고, 또 임진왜란 후 1세기가 지남에 따라 임진왜란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객관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서 전통적인 일본관도 소수의 실학자를 중심으로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들은 대체로 ‘일본론’에 관련한 저술을 남겼는데, 당시 지식인들의 일본 대한 무지와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며, 일본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촉구하였다. 임진왜란의 舊怨을 갚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한일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역사인식에 있어서 명분보다 時勢를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sup>54)</sup> 이러한 실학자들의 현실적인 일본인식이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에 대해서도 투영되었고, 주요담론으로 논의·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술 방식이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694년 장한상의 울릉도 조사로 확인된 울릉도의 부속 섬이 당대의 기록인 박세당의 『서계잡록』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로 명시되고 두 섬의 거리와 위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18세기 문헌에서는 울릉도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언급하여 울릉도와 우산도가 오랜

53)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조선지식인의 일본관에 대해서는 하우봉, 위의 책(1989), 위의 책(2006) 참조.

54) 18세기 실학자들의 일본인식에 대해서는 하우봉, 위의 책(1989), 위의 책(2006) 참조.

역사성이 있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이전보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더구나 일본에서 말하는 竹島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松島는 우산도(독도)라는 사실까지 언급하였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울릉도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영토분쟁의 실상과 내력을 잘 보여주었던 안용복 사건, 즉 ‘울릉도 쟁계’가 있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의 竹島=조선의 울릉도, 일본의 松島=조선의 우산도(자산도)라는 공식은 비록 17세기 기록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안용복이 살던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공유된 것이기도 하였다.<sup>55)</sup>

어떻든 ‘울릉도 쟁계’는 실재로 조야의 식자층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문제를 통시적으로 고찰할 계기를 제공하였고, 이전에는 조선사회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크게 내세울 일이 없었으나 조선사회로 하여금 동해의 두 섬에 대한 역사적 내력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토의식을 확립하려는 흐름을 형성케 한 것으로 생각된다. 울릉도·독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동시대의 문헌인 『通文館志』<sup>56)</sup>(1720년), 『東國文獻備考』(1770년),<sup>57)</sup> 『國朝寶鑑』(1782년경),<sup>58)</sup> 『度支志』(1788년경)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19세기 문헌인 한치윤의 『海東繹史』,<sup>59)</sup> 『萬機要覽』(1808년),<sup>60)</sup> 『增補文獻備考』(1908년),<sup>61)</sup>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셋째, 안용복이라는 인물에 관한 주목을 들 수 있다. 17세기와 달리<sup>62)</sup> 18세기 지식인들은 울릉도·독도의 역사성 뿐 아니라 조일간의 울

55) 주 16)과 같음.

56) 『통문관지』 권9, 『紀年』, 숙종 21년

57) 『東國文獻備考』 권18, 여지고1/ 관방3/해방1/울진현, 우산도울릉도

58) 『國朝寶鑑』 권61, 영조 11년

59) 韓致諭, 『海東繹史』 속집 제13권, 지리고 13 山水 1

60) 『萬機要覽』 권10, 軍政編 4/海防/東海

61) 『增補文獻備考』 권31, 여지고19/관방17/해방10/동해/울진, 우산도울릉도

62) 관료로서 ‘울릉도 쟁계’를 경험한 바 있는 박세당도 『서계잡록』 「울릉도」에서 신라~임진왜란 이전까지의 울릉도의 역사와 울릉도의 자연환경, 그

릉도 분쟁이었던 ‘울릉도 쟁계’와 울릉도를 지키는 인물로서 ‘안용복’을 주목하여 별도의 항목을 둘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1693년 도일 당시 같이 잡혀갔던 박어둔이나 1696년 당시 동행하였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그러나 안용복에 대해서는 그 행적을 기록하여 영토문제 뿐 아니라 조일관계에서도 대마도의 음흉한 계략과 이중성을 폭로하여 대마도에 대한 재인식을 촉발시킨 인물로 그리면서 ‘영웅호걸’로까지 평가하였다. 이것은 18세기 조선사회에서 안용복의 2차 도일을 울릉도·독도의 영유권 확보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용복의 평가는 이공익, 윤행임, 성대중, 원중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울릉도 쟁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없이도 안용복의 행적과 역할을 확대·과장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안용복의 1696년 도일은 오로지 안용복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과 계획에 의한 것이고, 동행했던 사람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였다. 요컨대 1693년 안용복이 일본에서 송환된 이후 동래부사나 접위관 등에게 ‘대마도의 비행’을 말하였지만 조정에 보고되지 않았고, 따라서 조정에서는 ‘대마도의 기만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용복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나머지 1696년에는 울릉도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모아 울릉도에 다시 갔고, 그곳에서 일본인들을 ‘3일 동안’ 기다린 것으로도 묘사될 정도였다. 심지어 원중거는 1696년 도일 당시, 울릉도까지 동해한 뱃사람들에게 일본인들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자신의 말을 따르는 자는 목숨을 건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따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행을 독려하기까지 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비변사에서의 안용복 공술에 따르면 안용복은 일행과 울릉도에 갔다가 일본인들을 만나게 되었다.<sup>63)</sup>

리고 장한상의 보고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고, 당시 조일간의 주요 쟁점이었던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넷째, 대부분의 기술이 신라 이후 울릉도의 역사성에도 주목하여 울릉도·독도가 오랜 역사성 속에서 우리 섬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울릉도 쟁계’의 전개와 종결 과정을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안용복의 도일 행위를 울릉도 영토문제에 국한한 것 아니라 조일 관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정치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1693년과 1696년 도일 당시 안용복은 이미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알고 있었고, 그가 막부와 伯耆州 태수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문서를 받은 사실을 기록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거듭 주장하였다. 이러한 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은 당시 양국에서 이미 공유된 사실이며, 나아가 1696년 안용복의 도일은 울릉도와 자산도(우산도)가 조선 땅임을 재확인하기 위한 자발적인 도일로, ‘울릉도 쟁계’는 물론, 조일간의 현안 문제, 요컨대 바람직한 양국 관계를 저해하는 대마도의 처사를 막부에 알리기 위해 의도된 행위로 바라본 것이다.

이들 문헌에는 안용복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 금지와 왜관무역의 문제점을 伯耆州 태수를 통하여 막부장군에게 전하고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화국지』의 내용을 한 예로 제시하면, 안용복은 伯耆州 태수에게

우리나라에서 公貿易으로 목면을 거래할 때에는 매 필마다 37척을 기준으로 삼고 양끝에는 푸른 실을 짜 넣는데 대마도인들은 푸른 실을 잘라내고 20척을 1필이라고 합니다. 또 쌀 15말을 1斛이라고 하는데 대마도인들은 6말을 1斛이라고 하며, 종이 한 묶음을 셋으로 잘라 세 묶음이라고 하고서는 오히려 또 수를 줄여서 江戸에 보고합니다. 그 밖의 간악한 행동을 이루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울릉도의 일을 가지고 日供을 속여서 취하며 여러 해 동안 東萊館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63) 『숙종실록』 숙종 22년 9월 무인(25일)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더욱 귀국에 정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大君께서는 과연 알고 계시는지요?<sup>64)</sup>

라고 대마도의 문제를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안용복의 공술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왜관 무역은 에도막부가 일본의 對조선교섭 업무 담당인 대마도에게 지급한 경제적인 특권으로 막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록이 추가된 것은 당시 왜관무역을 비롯하여 그간에 누적된 조일간의 문제점들이 ‘울릉도 쟁계’의 논의 속에 투영되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울릉도 쟁계’의 논의에서 막부와 대마도를 분리하여 2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울릉도 영유권 논쟁이 막부의 뜻이 아니라 대마도의 ‘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함으로써 막부와 대마도를 분리하여 막부에게는 우호적이고, 대마도에게는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울릉도 쟁계’는 막부의 지시를 받은 대마도가 1693년 안용복을 송환하면서 가지고 온 서계의 내용이 발단이 되었다. 1692년과 1693년 2년 동안 울릉도 해역에서 어로행위를 하지 못한 요나고 어민들을 위하여 돛토리번이 막부에게 요나고 어민의 竹島(울릉도)에서의 어업권 확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막부가 대마도에게 조선인의 竹島(울릉도) 도해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對조선교섭을 지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섭 당시 대마도가 竹島가 울릉도이며, 조선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自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조참판 앞으로 竹島=일본령이라는 내용의 서계를 보내오기는 하였지만, ‘울릉도 쟁계’가 대마도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막부와 대마도를 이분적

64) 元重舉, 『和國志』 「安龍福傳」

으로 인식하게 된 데에는 일본의 對조선 외교시스템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에도막부는 對조선 외교를 대마도에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따라서 조일간의 외교교섭을 위해 일본에서 오는 사자도 모두 대마도인이었고, 왜관에 머물며 무역에 종사한 이들도 모두 대마도인들이었다. 때문에 당시 조선 지식인들은 대마도와 막부를 분리하여 이해한 것으로 짐작된다.

더우기 원중거의 경우, 에도막부에 대해서는 어설피다고 여겨질 정도로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대마도에 대해서는 ‘양국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등 대단히 비판적이었다.<sup>65)</sup> 그는 심지어 막부가 대마도를 억누르면서 조선에 우호적인 정책을 취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sup>66)</sup> 원중거의 이러한 대마도 인식은 1763년 통신사행 중 오사카(大坂)에서 발생한 都訓導 崔天宗이 대마도의 通事에게 살해당하는 전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막부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대마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에도막부와 대마도, 本州人과 대마도인에 대한 인식의 이분법적인 경향성은 조선후기 일본에 관심을 가졌던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대마도 인식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인들이 가졌던 대일인식의 한계이기도 하였다.

65) 원중거의 『승사록』에는 계미통신사행 중 대마도인들이 통신사가 머무는 각 지역에서 사행에 제공되는 공물을 가지고 가로채거나 일정을 늦추거나 서두르거나 하면서 일본과 조선 양쪽에서 이득을 취하는 대마도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다.

66) 원중거의 일본인식에 대해서는 하우봉, 위의 책(2006), 「제2장 조선후기 통신사행원의 일본인식-1763년 계미통신사행의 元重擧를 중심으로-」 참조.

## 5. 맺음말

이상을 통해서 ‘울릉도 쟁계’ 이후 18세기 조선지식인의 울릉도·독도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태종실록』, 『세종실록』에 보이는 울릉도 거주민 쇠환 기사나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 「지리지」 등 조선초기 사료에서는 울릉도와 그 옆에 위치한 작은 섬의 존재가 보이나 중종대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 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1693년과 1696년에 있었던 안용복의 피랍과 도일, 1693년 안용복과 박어둔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대마도(일본측) 사자가 가지고 온 서계의 내용에서 시작된 ‘울릉도 쟁계’는 조선 지식인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변경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 취해진 조치가 1694년 9월에 실시된 장한상의 울릉도 파견이었다. 당시 장한상 일행은 울릉도 일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남쪽의 ‘희미한 섬’, 즉 독도의 존재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 ‘희미한 섬’은 박세당의 『서계잡록』과 신경준의 『강계고』에 우산도(독도)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이후 관찬기록이나 개인문집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별도의 섬이며,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전승되었다.

17~8세기에 접어들면서 실학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관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그들은 일본에 대한 재인식을 주장하면서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학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연구를 통해 일본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 그 결과 그들은 통신사행원들의 일본사행록을 제외하고는 일본에 대해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겼으며, 그들의 일본관은 다른 그룹의 지식인들보다 참신하고 개방적이었다. 이러한 실학자들의 자국사에 대한 역사기술의 변화 및 대일

인식의 변화는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그들의 기술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18세기 지식인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술을 남긴 대표적인 학자와 문집으로는 이익의 『星湖僿說』, 이맹휴의 『春官志』, 안정복의 『順菴集』, 신경준의 『疆界考』, 원증거의 『和國志』, 성대중의 『靑城雜記』와 『日本錄』, 이공익의 『練藝室記述』, 윤행임의 『碩齋稿』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실학자, 특히 기호남인계 실학자인 성호 이익의 학풍을 계승한 성호학파와 북학파인 연암학파 또는 그들과 교유한 인물들이며, 그 가운데에는 통신사행원의 일원으로 일본을 직접 견문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울릉도와 독도 관련 기록을 남긴 데에는 18세기 실학자들의 對日觀 내지 인식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행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일본을 직접 견문한 통신사행원들이 남긴 사행록들을 통하여 일본의 사회상과 문물이 점차 소개되고, 임진왜란 후 1세기가 지남에 따라 임진왜란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객관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서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지식인들 사이에 전통적인 일본관도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실학자들의 현실적인 일본 인식이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에 대해서도 투영되면서 주요담론으로 논의·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 18세기 조선지식인의 울릉도와 독도 내지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에 관한 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8세기 지식인들은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일본에서 말하는 竹島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松島는 독도임을 밝혔고, 울릉도와 독도가 오랜 역사성이 있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이전보다 명확하게 밝혔다. 일본의 竹島=조선의 울릉도, 일본의 松島=조선의 우산도(독도)라는 공식은 비록 17세기 기록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18세기 지식인들은 울릉도·독도의 역사성 뿐 아니라 조일간의

영유권 논쟁이었던 ‘울릉도 쟁계’와 울릉도를 지킨 인물로서 ‘안용복’을 주목하여 별도의 항목을 둘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안용복에 대해서는 영토문제 뿐 아니라 조일관계에서도 대마도의 음흉한 계략과 이중성을 폭로하여 대마도에 대한 재인식을 촉발시킨 인물로 그리면서 ‘영웅호걸’로까지 평가하였다. 이것은 18세기 조선사회에서 안용복의 2차 도일을 울릉도·독도의 영유권 확보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대부분의 기술이 신라 이후 울릉도의 역사성에도 주목하여 울릉도·독도가 오랜 역사성 속에서 우리 섬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울릉도 쟁계’의 전개와 종결 과정을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하고, 안용복의 도일 행위를 울릉도 영토문제에 국한한 것 아니라 조일관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정치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울릉도 쟁계’의 논의에서 막부와 대마도를 분리하여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울릉도 영유권 논쟁이 막부의 뜻이 아니라 대마도의 ‘야욕’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함으로써 막부에게는 우호적이고, 대마도에게는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일관계에 있어서 막부와 대마도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인식은 ‘울릉도 쟁계’의 시말에 관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막부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대마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며, 에도막부와 대마도, 本州人과 대마도인이라고 구분하는 인식의 이분법적인 경향성은 조선후기 일본에 관심을 가졌던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대마도 인식이다. 이는 당대인들이 가졌던 대일인식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18세기 지식인들의 ‘울릉도 쟁계’와 안용복에 관한 담론은 당시 지식인들의 현실인식과 조일관계의 시대적 상황 등 과도 밀접한 관련 속에서 그 기술 내용에 가감이 이루어져 전승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8세기 조선지식인들의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대일담론은 19세기 실학자인 李圭景<sup>67)</sup>과 成海應<sup>68)</sup> 등에게도 그대로 전승된다. 이들 19세기 지식인들의 울릉도·독도에 대한 논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로 삼고자 한다.

논문투고일 : 2015. 6. 30 심사완료일 : 2015. 7. 17 게재확정일 : 2015. 8. 8

6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5, 논사류 1, 鬱陵島事實辨證說  
68) 成海應, 『研經齋全集』, 권45, 地理類, 苑陵島志

## 참고문헌

- 『肅宗實錄』, 『鬱陵島事蹟』(張漢相), 『藥泉集』(南九萬),  
『西溪雜錄』(朴世堂), 『星湖僿說』(李瀾), 『春官志』(李孟休),  
『順菴集』(安鼎福), 『疆界考』(申景濬), 『和國志』(元重舉),  
『青城雜記』(成大中), 『日本錄』(成大中), 『練藜室記述』(李肯翊),  
『石齋稿』(尹行恁)
- 하우봉,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研究』, 一志社, 1989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손혜리, 『연경재 성해응 문학 연구』, 소명, 2011  
유미림,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014  
조은희, 『李肯翊의 歷史認識에 대한 一考察-練藜室記述을 中心으로-』, 『대  
구사학』 29, 1986  
김윤조, 『石齋 尹行恁 연구: 생애와 학문 경향을 중심으로』, 『漢文教育研究』  
9, 1995  
진재교, 『元重舉의 『安龍福傳』 연구-‘안용복’을 기억하는 방식-』, 『진단학보』  
108, 2009  
홍성덕, 『17세기 후반 한일 외교교섭과 울릉도-안용복의 피랍·도일사건을 중  
심으로-』, 『독도·울릉도 연구·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  
재단, 2010  
이원택, 『성해응의 지정학과 울릉도, 우산도 인식』, 『韓國思想史學』 41, 2012  
손승철, 『중·근세 조선인의 島嶼경영과 경계인식 고찰』,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장순순, 『조선후기 對馬藩의 조선 교섭과 1693년 울릉도 영속시비』, 『동북아  
역사논총』 37, 동북아역사재단, 2012  
장순순, 『17세기 조일관계와 ‘鬱陵島 爭界』』, 『역사와 경계』 84, 2012  
장순순, 『17세기 후반 ‘鬱陵島 爭界’의 종결과 對馬島(1696~1699년)』, 『한일

관계사연구』 45, 2013

윤유숙, 「18세기~19세기 전반 朝日 양국의 울릉도 도해 양상」, 『동양사학연구』 118, 2012

윤유숙, 「1693년 조선인의 돛토리번(鳥取藩) 연행 사건과 쓰시마번(對馬藩)」, 『동양사학연구』 123, 2013

윤유숙, 「1696년 오키(隱岐)에 도향한 조선인들의 송환과정 검토」, 『日本歴史研究』 38, 2013

【ABSTRACT】

Uleungdo and Dokdo as the discourse on Japan in  
the intellects in the 18th century Joseon

Chang, Soonso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rrative and awareness of Uleungdo and Dokdo of the intellects in the 18th century Joseon since the ‘Uleungdo Jaenggye (alias An Yong Bok Incident) which was the key dispute between Joseon and Japan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performances of Joseon and Japan regarding Uleungdo and Dokdo.

The entrance to Japan by An YongBok in 1693 and 1696 and ‘Uleungdo Jaenggye’ the dominion disputes of Uleungdo between Joseon and Japan became a momentum to attract attention of intellects of Joseon for Uleungdo and Dokdo a subsidiary island. As a result, the existence of Dokdo was reconfirmed. Afterwards, in the edited Ganchansaseo and personal books, Uleungdo and Dokdo were reflected as the territory of Joseon as separate islands.

In the 17th~18th centuries, some intellects with Silhak scholars changed their view to Japan. Their views were rather fresh and open than majority intellects. Sahaengrok which was recorded by Tongsinsaengwon who visited Japan directly introduced social aspects and civilization of Japan. After the pass of one century since the Imjin War of 1592, the war could be objectively viewed as a historic fact. Thus, they had more realistic awareness of Japan. Such awareness toward Japan was reflected in ‘Uleungdo Jaenggye’ and

An Yong Bok. So, it caused multiple records on description of Uleungdo and Dokdo.

The narrative of Uleungdo and Dokdo by the intellectuals in the 18th century Joseon was transmitted in the periodic situation between Joseon and Japan without omission. Su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described that Jukdo mentioned by Japan was Uleungdo of Joseon and, Songdo was Usando (Dokdo) and described historicity of Uleungdo and Dokdo to clarify these are Joseon's territory.

Secondly, it paid special attention to 'An Yong Bok' as a person who kept 'Uleungdo Jaenggye' and Uleungdo in the middle of disputes. It also described An Yongbok as a person not only exposed the plot and duplicity of Tsushima as well as territory issues to ignite awareness of Tsushima and viewed him as a 'hero'.

Thirdly, it describes the progress and conclusion of 'Uleungdo Jaenggye' in detail and understood the entrance to Japan by An Yongbok as a political action in the overall awareness of the relation between Joseon and Japan beyond restriction of territory issue of Uleungdo.

Fourthly, it showed that the dominion issue of 'Uleungdo Jaenggye' was not the intention of bakufu, but ambition of Tsushima, showing favorable attitude to bakufu but negative awareness to Tsushima. Such dichotomy in the awareness toward Japan was common to most scholars who interested in Japan in later Joseon, and it is also the limit of awareness of the majority contemporary people.

#### 【Key words】

Uleungdo Jaenggye(鬱陵島 爭界), discourse on Japan(對日談論), Uleungdo, Usando (Dokdo), An Yongbok(安龍福), Silhak scholar(實學者)